

# 응답하라 작가들

이완, 김재범, 박재영, 임상빈, 함혜경  
김아영, 조영주, 박준범, 송호준, 구민자, 기획: 고동연

스페이스 오뉴월  
11월 28일-12월 21일  
오프닝 오후 6시  
웍샵 12월 13일(토) 오후 4-6시



김재범, <응답하라 작가들>, 2014, 칼라사진.

## <응답하라 작가들>의 시작

전시는 2013년 7월에 기획자가 우연히 작가들의 삶에 대해서 물으면서 시작되었다. 인터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기 보다는 기획자의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기획자는 이 대화들을 전시, 기록, 책 등의 방법으로 보다 넓은 관객들과 소통할 방법을 궁리하게 되었다. 물론 작가들에게 생존, 삶, 궁핍, 그러면서 버텨나가기 등의 문제를 묻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획자나 비평가들에게도 생존의 문제는 똑같이 절실하다. 길게는 1년 반, 짧게는 지난 8개월(기금이 결정된 시기부터) 동안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뻘한 것들도 있었고 좀 독특한 것들도 있었다. 어떤 순간에는 단체로 한 목소리가 되기도 했고 어떤 순간에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 30대-40대 초반 작가들

과연 궁핍한가? 무엇 때문에 궁핍한가? 혹은 궁핍한 삶이 문제일까? 위의 질문들이 꼬리의 꼬리를 물고 계속 제기되기도 하고 멈춰지기도 하고를 반복하였다. 아무래도 단체행동을 자제하고 복잡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보려는 입장인 데다가 특정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 기획자와 그룹 전에 참가한 작가들에게 이 문제는 중요하기는 한데 답을 찾기에 어려운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에는 참여하고 있는 작가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국내 미술계에서 타자라고 여겨질 만한 위치에 놓인 작가들이 아니라는 사실도 한 몫을 하였다.





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포토그래퍼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지난 1여년간 매일 출퇴근하며 상품사진을 촬영해왔다. 일을 그만 두기 전까지 회사에서 투명색으로 이루어진 50여가지의 욕실 실내화(왜 전부 투명재질인지 모르겠다.) 200여가지의 생리대(하지만 고작 5개 회사가 생산해내는)등등 ready made 생활 상품 이미지들의 총 집합에 둘러싸여 지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관심이 가는 물건은 모델이 착용한 의상이었다.

**김재범 <출퇴근기로 드로잉하기>, 2014, 혼합매체.**

나는 '작가' 라는 직업군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과연 작가를 직업으로 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완벽한 파트타임작가이다. <buttercutters>는 디자인에서 순수미술로 전향하였거나, 순수미술을 전공한 디자이너들의 협동조합(alliance)이다. 설치한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소심한 작은 홍보 부스에는 조합에 속한 각 레이블의 월드와이드적인 활동들을 소개하는 자료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영상물이 재생된다.



**박재영 <buttercutters Alliance 미니 홍보 부스>, 2014, 혼합매체 설치, 1m x 1m.**



최근 관두기로 한 신발 디자이너/산업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다. 그때는 작가가 신발을 만든다는 이유로 공장에서는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고, 전시기획자에게는 신발사업 하느라 작업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렇게 2년간 이 일에 매달렸고 적어도 그러는 동안 "방향할 일은 없겠지" 하는 기대를 했었다.

**함해경, <거짓말하는 애인>, 싱글채널 영상(프로젝션), 10분 내외**



<티칭은 게임처럼>은 강의활동에 필요한 도구들로 강의실에서는 주로 체스 스탬프를 사용한다. 이것들이 티칭 도구로 활용되게 된 배경은 순전히 재미로 시작되었다. 코르크마개로 만든 체스 스탬프는 과제 검토시 학생들의 프로세스를 보고 체스 말 분류법에 따라 학생의 손등이나 작업노트에 찍어주기 시작했다. 어떤 재능의 소유자이고 무슨 능력이 부족한지를 알려주는 기호로서. 그렇게 시작된 놀이는 학생들에게 게임 상에서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득템의 과정을 닮아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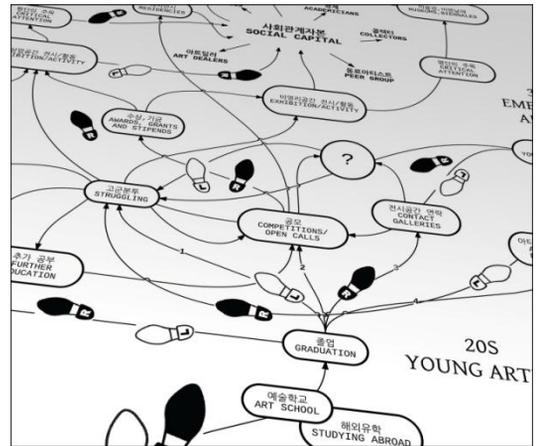
임상빈, <티칭은 게임처럼>, 2014, 설치(체스), 가변크기.

## 2층

... 그런 식의 <복권>이 실패한 것은 당연한 일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에는 도덕적 가치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 그것은 단지 희망만을 겨냥한 것이었지요. ...(보르헤스, <바빌로니아의 복권> 중에서, 1941)

미술의 장 내부에서 행운의 패를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추락의 패를 얻게 되는 가능성들을 추론하는 도식을 완성한다. 이 도식은 커팅시트로 제작되어 전시 공간 바닥에 설치된다.

김아영, <바빌론 댄스 Babylon Dance>, 2014, 바닥설치 및 영상.



조영주, <유니버설 콜라보레이터, 서울>, 2014, 단체널 영상.

- "유니버설"이란 미술계의 국제교류를 지칭하는 단어

- "콜라보레이터"란 서로 도우며 함께 하는 자. 현지언어 통역 또는 각종 연회장에서의 에스코트를 제공하거나, 혹은 가벼운 연애를 나누는 등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힘을 합하는 자

- "서울"이란 세계적 메트로폴리탄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국제화'를 강요하며, 세계 미술계에서는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는 아시아의 한 도시



영상작업만을 주로 하는 작가로서 각종 현실적인 문제들이 작업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나게 된다. 복제와 빠른전달을 의도했으나 사용제한에 대한 윤리적 약속을 필요로했고, 데이터의 원본성을 의도했으나 주기적으로 복제해야 하는 기술적 매뉴얼도 필요로 했다. 작업을 위해 초기 비용, 장비와 기술비용이 많이 드는 속성과 디지털 신호의 무손실 원본복제의 문제로 인해 작업의 가격과 에디션의 수를 메기는 일도 쉽지 않다. 게다가 미술관들에서 많은 미디어 아트 관련 전시들이 일어나지만 실상 기술적인 문제를 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박준범, <비디오아트를 시작한 작가를 위한 안내서>, 2014, 영상 설치 15분,**

2008년 송호준이 설립한 설립된 미래전자기술믹서 (Future Electronics Technology Mixer)는 디자인, 기계전자 장치 설계, 아트 디렉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이키, 바비브라운, 서태지 컴퍼니 등 유수의 클라이언트들과 작업을 하였고, 작가 송호준의 의뢰에 따른 작업도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이번엔 기존의 갑과 을의 역할을 바꾸어 미래전자기술믹서가 작가 송호준에게 회사 홍보영상 작업을 의뢰하였다. 하지만 작가 송호준은 미래전자기술믹서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분노를 느껴 작업의 전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송호준 <미래전자기술믹서 홍보영상>, 2014, 혼합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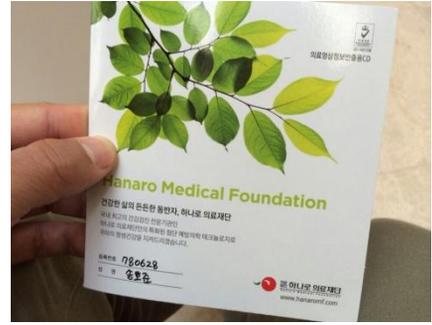


얼마 전 각종 레지던시에서 작가들이 쓰고 남은 물건들을 물물교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보았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전시가 끝난 후에 많은 물건들을 떠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행사라고 여겨진다. 나의 경우에도 전시를 마치고 나면 수 많은 재료들이 남는다.

1. 전시가 끝난 이후 갖고 있는, 사용하는 듯 아닌듯한 작업의 일부분
2. 작업-전시를 위해 구입, 남아서 갖고 있는 각종 부자재- 부수적 재료
3. 새 아이디어를 위한 여행
4. 반사판
5. 0

**구민자, <A ZERO +>, 2014, 설치 및 싱글 채널 영상, 가변크기.**

## 제안들



2014년 9월 6일, 단체 건강검진 (김아영, 이완, 박준범, 송호준, 김재범)

전시준비과정에서 특정한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토론이 벌어지고는 하였다. 그리고 예술복지기금, '작가적' 삶의 방식 등등 작가의 생존과 존재에 대한 다양한 소재들이 이야기되어졌다. 그 중에서도 전시를 기획하면서 함께한 참여작가들이 단체를 만들게 되면 과연 어떠한 역할과 정체성을 지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연 단체행동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졌다. 덧붙여서 미협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외국의 예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무엇인가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젊은 작가들을 위한 생존 키트를 만들어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리고 또 다른 작가로부터 젊은 작가들이 자신들의 선언문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기획자는 유사한 주제로 대학원 재학 중이나 대학원을 나온 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작가들과의 인터뷰와 전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우리들의 입장이나 전략을 차별화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도 들었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에 궁금해 하기도 비판적이 되기도 하였다.

전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정확히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 않았다. 기획자의 입장에서 특정한 입장을 고수해야한다는 생각을 점차로 배제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미술계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레지던시의 플리마켓, 각종 마켓, 자립의 기예와 같이 작가들이 만드는 사회 협동조합에 대한 워십, 그리고 연관된 전시들, 졸업생들의 전시에 등장하는 선언문들이 반가울 따름이다. 더불어 단체 행동과 선언문도 좋지만 효율성이나 파급력을 논하기에 이 문제가 너무 미묘하다는 사실도 인식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한국 미술계가 지닌 병폐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구조로부터 야기된 부분도 있지만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에 해당한다. 특정한 집단의 관심사나 사회적 갈등구조, 체계로만 축약되기에 이 문제는 너무나도 '궁극적'이다.

이제 기획자의 소박한 전시 목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더 많은 작가들이 더 자세하고 솔직하게 보다 복잡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더 다양하게 소통되고 이해되며 오해되는 것, 이것이 기획자가 바라는 바이다. 왜냐하면 궁핍, 생존이라는 맥 빠진 단어를 아예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닦친 상황을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말하고 부딪쳐야 한다. 이 상황을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언어들로 표현하고 고백해야 한다.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고민과 용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